

인구소멸 위기 곡성, 수상레포츠 관광단지로 돌파구 찾는다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도시” 대전환 승부수

전남 곡성군이 인구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경쟁장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젊은 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곡성군은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경쟁장 유치를 추진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 인구 위기 극복, '수상레포츠 관광단지'가 해법이다

곡성군은 인구감소지수 전국 5위, 고령인구 41.4%의 초고령 지역이다.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지역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실 속에서, 군은 젊은 인구가 실제 '일자리'를 이유로 머무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소멸위기 지역 재도약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K-관광 혁신팀을 출범시키며 지역 관광을 통한 성장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곡성군의 방향성을 뒷받침한다.

곡성 수상레포츠 관광단지는 경쟁장을 중심으로 워터파크·리조트, 래프팅파크 등을 복합 조성해 관광, 레저, 문화, 숙박, 체험을 하나의 체류형 산업으로 설계하고 직접·간접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레저 및 관광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청년 인구의 유

출을 막고 곡성으로의 귀향 및 이주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호남 균형발전, 곡성에서 시작 - 호남권 대표 K-관광 랜드마크

경상북도 영천경마공원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관광 인프라 확충의 촉매제가 된 것처럼, 전남 곡성은 수상레포츠 관광단지를 통해 호남권 K-관광 랜드마크를 만들고 지역 관광 활성화의 모범 사례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곡성 경쟁장은 기존 사행산업 시설과 다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경주가 없는 날에도 주민과 관광객에게 상시 개방되는 사회 환원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설계해, 단순한 레이스가 아닌 레저·숙박·체험·문화 등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 클러스터를 지향한다. 워터파크·리조트·래프팅파크를 연계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레저 기반 일자리와 관광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관광객 유치, 경주시행 수익, 지방재정 확충,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장기 지속형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문체부가 최근 K-관광 혁신팀을 출범시키며 지역 관광의 혁신모델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곡성 경쟁장은 호남형 K-관광 대표 사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곡



성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사행산업이 아닌, 레저·문화 기반의 공공성 있는 관광혁신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 곡성 경쟁장,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상징이 될 것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조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소멸위기 지역 재도약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와도 정합성이 높다. 경쟁장을 중심으로 워터파크·리조트·래프팅파크 등이 결합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선수 및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곡성군은 경주시행 허가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허가가 이뤄지는 즉시 민간투자 유치를 본 궤도에 올려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곡성'으로 바꾸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조성은 지방이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 인구·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음을 전국에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조성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바꾸는 사례로서, 이 사업을 통해 인구정착을 넘어서는 재도약의 새 장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수상레포츠관광단지는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복합환원공간으로써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활성화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곡성/이경수 기자



해남군 'LPGA대회 성공개최' 스포츠마케팅으로 빛난 한해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 리더부문 대상 수상

해남군이 2025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에서 리더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스포츠마케팅 역량을 인정받았다.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은 대한민국 스포츠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스포츠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인물 등을 선정해 모범적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9년 제정된 상으로,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스포츠분야에서 주춧돌을 다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하고 있다. 시상식은 18일 서울시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해남군은 리더부문 대상으로, 올해 전국단위 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130억 원 규모의 직간접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스포츠마케팅 모델을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난 10월 국내 유일의 LPGA 정규대회인 '2025 LPGA BMW 레이디

스 챔피언십'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적인 스포츠마케팅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LPGA대회에는 6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60여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은 물론 성공적인 대회 운영으로 해남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이다.

또한 해남스포츠파크 조성, 파크골프장 확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 군민 체감형 체육 복지 정책을 강화해 균형 잡힌 스포츠 환경을 구축해 왔으며, 스포츠산업 기반 확대를 통해 '스포츠 중심도시' 위상을 공고히 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해남군이 추진해 온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대외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스포츠를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 기반 확충과 생활 체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 제공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9일 팔마체육관에서 9개 시군 생활 체육 동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7회 남해안남중권 생활체육교류 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협의회장 장충남 남해군수)가 주최하고, 순천시와 순천시체육회 주관했으며, '우리의 희망 하나로, 남해안의 힘 미래로'라는

순천시, 제7회 남해안남중권 생활체육교류대축제 성료!

9개 시군이 하나 되어 빛어낸 화합과 소통의 장

비전으로 개최됐다.

전남 5개 시·군(순천, 여수, 광양, 보성, 고흥)과 경남 4개 시·군(진주, 사천, 남해, 하동) 총 9개 시·군 6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가해 생활체육 교류의 열기를

거뻐냈다. 행사는 오전 10시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게이트볼, 그라운드포플, 탁구, 테니스 4가지 종목의 생활 체육 경기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

며 스포츠를 통한 우정과 협력을 다졌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환영사에서 “생활체육을 통해 지역 간 우정을 나누고, 건강한 공동체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각 지역에서 준비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I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월스트롬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전 탁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공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 GS건설 | (의한화/건설) | HDC엔지니어링

A매치 마친 흥명보호, 을사년 잔여 과제는 조추첨·베이스캠프 선정

11월 A매치 2연승으로 유종의 미 2025년도 A매치 일정은 끝났지만 '로드 투 북중미' 준비 작업은 계속

흥명보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을사년 A매치 일정은 끝났지만,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무대 준비는 계속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0일 “올해 A매치는 종료됐지만, 북중미 대회에 대한 준비는 이어진다”고 밝혔다.

흥명보호는 지난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볼리비아를 2-0으로 완파한 데 이어,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에 1-0 신승을 거뒀다.

지난달 파라과이전 2-0 승리까지 고려하면 3연승으로 2025년도 A매치 일정을 마쳤다.

한국 시간으로 내달 6일 진행되는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의 포트2 수성에도 성공해 확실한 결과를 책임 한국 축구

다. 유종의 미를 거뒀지만, '로드 투 북중미'를 향한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 조 추첨 이후가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기다.

북중미월드컵부터 본선 진출국은 48개국로 확대됐다.

현재 42개국인 결정을 가는데, 나머지 6개국은 내년엔 열린 유럽 플레이오프(PO)와 대륙 간 PO를 통해 확정된다.

이번 대회 조 추첨에서 한국은 처음으로 포트2에 자리했다.

이에 포트1, 포트3, 포트4에 위치한 국가들과 한 조에 묶일 예정이다.

유럽을 제외한 동일한 대륙 국가는 같은 조에 지리할 수 없다.

이번 대회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진행돼, 어느 월드컵보다 넓은 지역에서 펼쳐진다.

조 추첨 결과에 따라 조별리그를 소화할 지역이 결정되는데, 그에 맞춰 베이스캠프를 확정해야 한다.

베이스캠프는 대회 기간 숙소, 훈련장을 갖춘 대표팀의 거점으로 활용된다.

경기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조추첨되는 베이스캠프 선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미 몇 차례 북중미로 가 지역별로 베이스캠프 리스트를 추린 축구협회는 조 추첨 전후로 마지막 선별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FIFA는 내년 1월 말까지 각국의 베이스캠프 희망지 1, 2순위를 신청받는다.

월드컵 본선 전까지 남은 내년 A매치 기간에 만날 스카프 상대도 찾아야 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조 추첨 이후 본선에 진출한 국가들이 조별리그에서 만날 국가와 유사한 축구를 하거나, 같은 대륙에 있는 팀들과의 매치업을 선사시킨다”며 “한국도 조 추첨이 끝나면 최대한 빠르게 평가전 상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2026 LPGA투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년 연속 해남서 개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내년 6월4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US 여자 오픈, 6월25일에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7월9일에는 프랑스에서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이 열린다.

이후 7월30일 잉글랜드 리덤 세인트앤스에서 벌어지는 AIG 여자 오픈을 끝으로 5개의 메이저대회 일정이 마무리된다.

아시안 스위그는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는 2월19일 개막하는 태국의 혼다 LPGA 타이랜드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중국을 거쳐 치러지고, 하반기에는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에서 경기가 펼쳐진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LPGA 투어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10월 22-25일 개최되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남 해남 파인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다.

9월11일에는 네덜란드에서 유럽·미국 여자 골프 대륙 대항전인 솔하임 컵이 열린다.

2026시즌의 총상금은 1억3200만 달러(약 1940억원)로 LPGA 투어 역사상 최고액으로 책정됐다.

/뉴시스